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현장에서 확인 가능

농관원, 5분 판별도구 개발

〈표로 살펴보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도구 비교〉

구분	기존(실험실/이화학분석)	신규(현장/검정키트)
분석기간	4 일	5 분
분석비용	400,000 원	10,000 원
시료량	2 kg	0.3 g
분석 가능 부위	• 삼겹살, 목살(2개 부위)	• 삼겹살, 목살, 등심, 안심, 갈비, 항정살, 전지, 후지, 대패삼겹살, 특수부위 등(모든 부위)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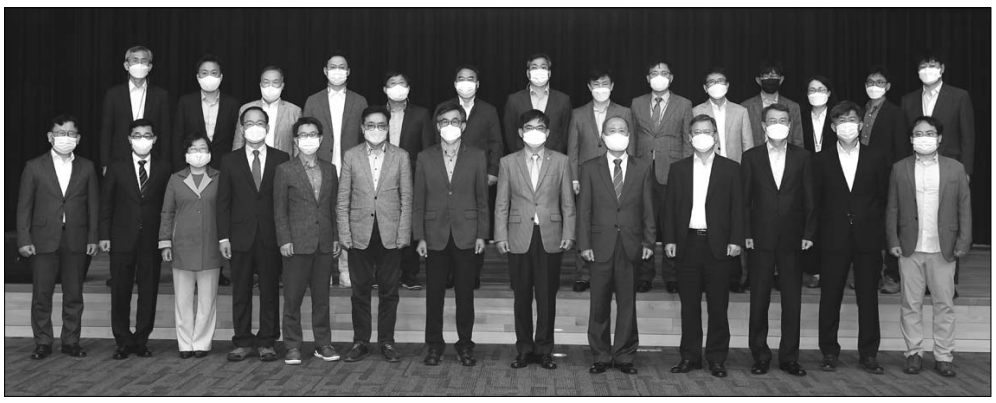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됐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했으며,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이 가능해져 연간 약 3억 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했으나, 새로이 개발된 검정키트를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조기에 전면 활용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검정키트 사용교육을 마쳤으며, 5~6월 지자체, 한돈협회,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정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원산지 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되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과 양 기관의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20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 대응책 모색

농진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공동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과 공동으로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과 양 기관의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20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농업 촉진 추진계획, 디지털 기반 농촌 공간 재생기술 개발,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체계 구축방안, 디지털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앞으로 구축하게 될 디지털농업 데이터(자료) 플랫폼(운영체계)의 활용성 향상, 정밀농업 기술의 확산, 농촌 공간 관리의 체계화 방안, 비대면 시대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종합토론에서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은 "디지털농업 기술은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토론 결과를 검토해 디지털 기반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분야에서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경제 분야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작황 예측 서비스 확대 또는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산물의 온라인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2018년에 비해 2020년 약 41% 증가했다"면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산물 생산자, 지역, 품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매, 운송 물류시설과 장비의 고도화, 농산물 운송 정보의 데이터화 등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됐다"라고 밝혔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확산이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 농촌 정주환경 개선, 농산물 수급 예측과 안정 등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여성단체협, 농업 공익가치 증진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희)은 20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국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등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 공동 전개 ▲우리 농축산물 애용, 농촌 방문 및 체험을 통한 활력화 도모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위향상을 위한 가치 홍보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등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김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농촌일손돕기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레미콘 생산현장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일 전주시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업체인 ㈜동방(대표 최규현, 최상열)의 레미콘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레미콘 발주가 본격화되는 건설 성수기를 맞아 레미콘 업체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현 청장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수요기관의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레미콘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첨단 시스템 적용' 주거 편의성 극대화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

비규제 지역에 공급
계약 후 분양권 전매 가능
내달 1일 1순위 청약 진행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1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공급하는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235세대 ▲84㎡B 118세대 ▲118㎡ 157세대 ▲119㎡ 11세대 ▲146㎡ 120세대를 비롯해 펜트하우스 ▲181㎡ 2세대 ▲238㎡ 2세대로 구성된다.

판상형 위주에 풍부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효율성 'UP' 첨단시스템까지 더해진 새 아파트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여유있는 중대형 평형을 주력으로 4·5bay 판상형 위주 설계와 펜트하우스 세대를 구성해 명품 주거단지로 특화했다.

전용면적 84㎡는 현관 창고,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구성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 전용면적 84㎡A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로 환기성이 뛰어나며, 전용면적 84㎡B타입은 거실과 주방, 다이닝이 일렬로 배치된 LDK 구조로 설계해 주방의 개방감을 높였다.

전용면적 118㎡는 5bay 판상형 구조이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옵션 선택을 통해 침실3 일부를 드레스룸으로 변경 가능하며, 안방 드레스룸 공간을 줄이고 주방 팬트리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또, 전용면적 119㎡는 6bay 초광폭 전면 설계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고, 침실 4개와 거실, 가족실이 구성돼 여유있는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146㎡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조리공간이 보이지 않는 히든주방, 안방 추가 알파공간, 현관과 주방을 바로 이어주는 주방&현관창고, 특화형, 침실2에 설치되는 욕실을 팬트리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 등 다양한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펜트하우스 세대는 6·7bay 판상형 설계로 일조와 채광성이 우수하며, 전용면적 181㎡와 전용면적 238㎡에는 세대 전용 테라스가 설치된다.

단지 내에는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 내 설치되는 원패스와 스마트스위치(세대 현관 적용)를 통해 조명 및 난방 제어, 가스밸브 잠금, 세대월패, 주차 위치 확인,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검침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은 물론, 전용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소지 시 공동현관 자동출입,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주차된 차량의 위치 정보 인식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원패스 시스템도 적용된다.

호수공원 가깝고 도보통학 가능한 아파트, 편리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까지 확보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이 장점이다. 은파호수공원(257만여㎡ 규모)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산책 등 여가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지곡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동원중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시립도서관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또, 인근에는 동산중학교 이전 사업이 예정돼 있어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군산의료원, 롯데마트, CGV,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반경 2km 이내에 자리하고 있고, 인접한 수송지구 중심 상권 및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차량으로는 인근 새만금북로, 공단대로, 월명로, 대하로 등을 이용해 군산 전지역 및 전주, 익산 등 주변도심권 이동이 수월하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1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6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21~25일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제다.

단지가 들어서는 전북도 군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세대주, 주택수와 관계없이 군산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군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호수 생활권 입지에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인 만큼 군산을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에 추첨제 물량이 꽤 있고, 분양권 전매까지 자유로운 만큼 부자수요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중기중앙회,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으며, 이날 조정위원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공원 탐방안내소 개소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지난 18일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 위치한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탐방안내소는 연면적 733㎡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안내데스크, 로비 2층은 전시실이 조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덕유산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걷는 동행길이라는 주제로 생태·문화탐방 및 탄소중립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탐방안내소에는 주요 탐방정보 안내를 위한 스마트 비대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탐방객이 잠시 쉬어가며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탐방안내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부산림청-덕유산자연드림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 협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18일, 덕유산자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윤수)과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으로, 서부청에서는 병풍취, 산마늘, 산양삼 등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유림을 제공하고, 덕유산자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 양 기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개발을 위해 국유림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